



慶州 感恩寺址 東塔(國寶 第112號) 出土 金銅舍利函

-1300년전의 신비한 신라 금속공예기술의 실체를 밝혀준다-

지난 4월 25일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감은사터의 동 3층석탑(國寶 第112號)을 해체하던 중 3層塔身 윗면 舍利孔에서 金銅 舍利函이 발견되었다.

금동사리함은 안전한 운송을 위해 우레탄폼으로 포장하여 國立文化財研究所 保存科學研究室로 이송한 후 보존처리 전담팀에 의해 정밀 해체 수습하였다. 그 결과 金銅製 舍利外函, 金銅製 殿閣形 舍利器, 水晶製의 舍利瓶, 金製사리병 뚜껑 및 받침, 僧像(4軀), 四天王(4軀), 龍(4마리), 獅子(4마리), 金製風鐸(5點), 사리기의 天蓋裝飾 등과 함께 舍利 55과가 수습되었다. 그러나 사리함은 외부의 충격과 부식으로 인한 파손 등 손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1. 金銅製 舍利外函

전체높이(뚜껑포함) 약27 cm, 몸체높이 24cm, 폭 19cm

네개의 직사각형 금동판을 사개물림으로 고정시키고 동서남북 각면에 사천왕상(16~17cm)을 조각하여 못으로 고정하였다.(rivet) 뚜껑은 방추형으로 모임지붕의 殿閣形을 이루고 있다.

1-1 뚜껑 : 뚜껑의 네면은 봉황으로 추정되는 조각을 붙였다.

2-4 獅子(4마리) : 크기 2.0cm

1-2 몸체

동쪽(持國天王)-왼손에 金剛杵를 쥐고 惡鬼를 밟고 있다.

남쪽(增長天王)-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다.

서쪽(廣目天王)-오른손에 창을 쥐고 있다.

북쪽(多聞天王)-오른손에 보탑을 받쳐들고 있으며 소를 밟고 있다.

2 네면 모두 사천왕을 중심으로 문고리를 물고있는 鬼面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고 네 모서리에는 구름무늬를 장식하였다. 사천왕들은 전체적으로 허리는 가늘고 몸을 비트는 등 생동감과 유연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2. 金銅製 殿閣形 舍利器

전체높이(寶珠포함) 13.4cm, 臺座높이 6.4cm, 上臺 폭 12.4cm, 下臺 폭 14.5cm, 中臺 폭 9.8cm

4각蓮花臺座 위에 8판연화받침을 놓고 그 위에 연꽃이 조각된 寶珠形 塔身을 안치하였으며, 그 속에 사리(병)을 안치하였다. 寶珠形 탑신은 上部에 仰蓮을 마련하고 그 위에 수정으로 된 보주를 올려 놓았다. 또 사리병 주위의 네 모서리에 대나무 모양의 기둥을 세우고 2중의 天蓋로 莊嚴하였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佛殿의 佛壇과 담집을 축소해 놓은 듯한 형상이다.

또한 서탑 출토 舍利器에서 보이는 奏樂像과 같이 사리(병) 주위를 장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천왕과 僧像을 비롯하여 대좌의 하대 네 모서리를 장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사자와 천개의 일부분에 장식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龍, 風鐸 및 化佛·飛天像·蓮花紋·唐草紋이 透彫되어 있는 장식, 사슬장식, 瓔珞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2-1 臺座

下臺 : 覆蓮과 네 모서리에 귀꽃장식을 하였다.

中臺 : 각면에 2개씩의 안상을 배치하고 그 안에 八部神衆像을 정교하게 浮彫하였다.

上臺 : 唐草紋과 仰蓮裝飾을 하고 윗면 가장자리에는 난간을 설치하였다.

2-2 四天王(4軀) : 크기 2.7 ~ 2.8cm(광배, 대좌 포함 3.4cm)

원으로 두광을 표현하고 손에는 칼, 창, 금강저, 보탑을 들고 있고 갑옷 표현이나 표정은 외함의 사천왕을 축소해 놓은 듯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2-3 僧像(4軀) : 크기 2.5 ~ 2.8cm

얼굴 표정이 원만하고 미소를 띠고 있으며, 발 아래에는 축이 있어 꽃아서 세울수 있게 되어 있다.

2-4 獅子(4마리) : 크기 2.0cm

목의 갈기나 드러난 이빨 등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고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하고 있거나 입을 다문채 머리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한 쪽 앞발을 치켜들고 있는 등 생동감있게 표현하였다. 발아래에 축이있어 꽃아서 기단 하대 모서리 위에 고정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2-5 龍(4마리) : 길이 3.8cm

입에는 둥근 고리를 물고있는데 天蓋의 네 모서리에 장식하여 수식을 늘어 뜨리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2-6 金製風鐸(5點) : 크기 0.5~0.7cm

0.3cm 정도의 금판을 말아서 몸체를 만들고 그 안에 金絲로 고리를 만들어 鐸舌을 달아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표면에는 아주 작은 금알갱이를 붙이는 날알기법이 매우 정교하게 사용되었다.

2-7 天蓋裝飾 : 化佛과 飛天像 및 연화문, 당초문 등을 투조장식 하였으며 사슬 장식을 이용하여 영락을 늘어뜨려 장식하였다.

3. 舍利瓶 및 뚜껑과 받침

3-1 사리병 : 높이 3.7cm(뚜껑, 받침 포함 4.9cm), 입지름 1.2cm

水晶으로 만들었으며 목이 긴 長頸壺 모양이며, 상하가 관통되어 있다. 받침은 원형이며 뚜껑은 8각형의 연화문 위에 寶珠가 달려 있다. 뚜껑과 받침은 모두 금제이며 표면에는 미세한 금알갱이를 땀을 하지 않고 붙이는 날알기법(granulation), 같은 방법으로 금사를 붙이는 필리그리(filigree)기법으로 장식하여 매우 정교하고 세련된 세공기술을 보여준다.

4. 사리 : 크기 0.1~0.3cm

모두 55과로 추정된다.

5. 동탑의 기반부 출토 기타 유물

○ 金銅如來立像 2點 : 크기 3.5cm, 3.5cm

2점 모두 표면부식으로 손상되어 있으며, 대좌는 연화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 청동방울 5점 : 모두 청동부식물로 덮혀있으나 원형은 손상되지 않은채 발견되었다.

6. 사리함의 특징과 발견 의의

○ 본 사리함의 전체적인 짜임이나 구성은 1959년 서탑 해체시 수습된 사리함과 유사하지만 서탑의 것이 남성적인 수법인데 비해 동탑의 것은 규모면에서 조금 작고 여성적이라 할 수 있다.

○ 서탑 사리기는 사리(병) 주위에 주악상이 배치되었는데 동탑의 것은 사천왕과 승려상이 배치되어 있다.

적은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02-735-5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탑 사리기와 달리 대좌의 기단 하대 네모서리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자(4마리), 천개의 네 모서리에 장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4마리)이 발견되었다.

○ 특히 천개의 처마에 매달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제풍탁(0.5~0.7cm)의 발견과 그 정교한 금속세공기술은 주목할 만하다.

○ 본 사리장엄구는 외함과 사리기는 물론 금제풍탁, 사리병의 뚜껑과 받침, 사천왕, 팔부신중상, 사자, 용, 천개의 화불·비천상·연화문·당초문 장식 등은 금도금, 주물, 돌을새김, 투조기법, 날알기법 등 금속공예 기법이 총 망라된 7세기 신라 공예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불교 조각사, 공예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7. 보존처리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 사리함은 출토 당시 외부의 충격과 1300여년 동안의 장시간에 걸친 부식으로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고도의 전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향후의 보존처리에는 ①표면의 부식물 제거문제 ②사리기의 원형 복원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2~3년의 보존처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예비 보존처리 단계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재질과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부식생성물과 오염을 제거하여 도금부분을 재현할 계획이며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본 보도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02-735-5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함 동측면(持國天王像)



외함 서측면(廣目天王像)



외함 남측면(增長天王像)



외함 북측면(多聞天王像)



사리병 및 두껍



사리기 수습 龍, 獅子, 僧像, 神將



사리기 수습 風鐸



사리기 추정 복원 상태